

日・韓 両国語 動詞의 多義的인 語彙分析研究*

- 遊ぶ와 놀다를 中心으로 -

김도은**

(e-mail : Kim30ms@hanmail.net)

<목 차>

- | | |
|------------------------------|---------------------------|
| 1. 서론 | 3.1. 일·한 자·타동사에 대한 多義性 관계 |
|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 3.2. 가격형식과 遊ぶ·놀다와의 多義性 분석 |
| 2.1. 선행연구 | 3.3. ㄱ격형식과 遊ぶ·놀다와의 多義性 분석 |
| 2.2. 연구방법 | 3.4. ㄴ격형식과 遊ぶ·놀다와의 多義性 분석 |
| 3. 일·한 명사의 格形式과 동사의 多義的 어휘분석 | 4. 결론 |

キーワード : 動詞(Verb), 遊ぶ(Asobu), 놀다(Nolda), 名詞(Noun), 多義語(Polysemic word), 格形式(Case form type)

1. 서론

언어의 대조연구는 계통관계와 상관없이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비교 대조 분석하고, 그 양국어의 差異와 同類의 현상을 파악하여, 각각의 言語의 특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쟁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差異와 同類의 현상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일본어 동사 ‘遊ぶ’와 한국어 동사 ‘놀다’에 대하여 어휘적인 의미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로서는, 기존의 동사의 의미항목과, 새롭게 동사의 의미기능을 획득했다고 인정되는 항목, 즉 의미의 확장 범위 등도 포함하여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7198)

** 영남대학교, 연구원, 일본어학

이와 같이 일·한 양국어 동사 ‘遊ぶ’와 ‘놀다’의 多義的 어휘의 의미변화에 대하여 자동사와 타동사와의 의미관계, 一格名詞와 동사와의 의미관계, 二格名詞와 동사와의 의미관계, 三格名詞와 동사와의 의미관계로 구분하여 多義的 어휘를 분석 진행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2.1. 선행연구

현대 일본어동사 ‘遊ぶ’의 의미에 관한 자료로는 사전의 体裁를 취급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중에는 小泉保外編(1989)¹⁾과 같이 「日本語動詞の結合価を分析する目的」에서 出発하는 것과 小内一(2010)²⁾의 具體的인 結合을 列挙한 것 등이 있다. 또한, 森田良行(1989)³⁾는 現代 日本語의 基礎的인 語彙項目에 관하여, 일반사전 보다는 훨씬 상세한 解説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어 사전⁴⁾과 한국어 사전⁵⁾에서遊ぶ와 놀다는 多量과 多數의 용례가 나온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전 가운데 일본어는 『日本国語大辞典』⁶⁾과 『明鏡国語辞典』⁷⁾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어는 『標準国語大辞典』⁸⁾을 중심으로 하여 사전상의 의미항목을 기술한다. 이들 양국어 사전을 바탕으로 의미항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 『日本国語大辞典』 意味項目 >

遊ぶ(一) [自バ五(四)]
(1)興のおもむくまに行動して楽しむ。① 思うことをして心を慰める。遊技、酒宴、船遊びなどをする。
② 狩猟をする。また、気楽に歩きまわって楽しむ。③ 詩歌、管弦、舞いなどを楽しむ。遊樂する。
④ (鳥獸、魚などが)楽しそうに動きまわる。

1) 小泉保ほか編(1989) 『日本語基本動詞用法辞典』大修館書店 p.序iv.

2) 小内一編(2010) 『てにをは辞典』三省堂 p.30.

3) 森田良行(1989) 『基礎日本語辞典』角川書店 pp.42-44.

4) 日本語 사전으로서 金田一春彦外(1980) 『学研国語大辞典』第二版 学習研究社、森田良行(1989) 『基礎日本語辞典』角川書店 등이 있다.

5) 韓国語 사전으로서 李熙昇(2004) 『옛센스 国語辞典』(民衆書林)과 延世大学校 言語情報開発研究院(1998) 『延世韓国語辞典』(斗山)등을 참고로 한다.

6) 日本大辞典刊行会(1972)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pp.288-289.

7) 北原保雄(2011) 『明鏡国語辞典』第二版 大型版 大修館書店 pp.33-34.

8) 国立国語研究院(1999) 『標準国語大辞典』(株)斗山東亜 p.1251.

⑤ 他の土地に行つて、その風景などを楽しむ、遊歴する、また、行つて学ぶ、遊學する。
⑥ 酒色などにふける。また料亭、遊里などで楽しむ。
(2) 仕事、勉強、働きなどしていない状態にある。
① 仕事や勉強しないで、また職が得られないでぶらぶらしている。上の学校に入れないで、浪人することにもいう。
② 金、道具、場所などが使われないでいる。(土地 等)
③ 工学上、応力を受けるはずの物がそれを受けていなかったり、付着するはずの物がしていない状態になる。
④ 野球で、投手に有利な条件の時、打者の打ち気をそらすために、ボールになる球を投げる。
(二) [他・四] (1) (樂器や曲名を目的語として)舞樂を行う。奏する。(2) 人をからかう。もてあそぶ。
(三) その他 ①爲すことなし。暇なる。② [体を動かして]好きなことをして楽しむ。③ 博奕をうつ。博奕す。

(丑2) <『明鏡國語辭典』意味項目>

遊ぶ [自5]
① 勉強や仕事を離れて好きなことをして時間を過す。② 飲酒·かけ事·色事などにふける。遊興する。
③ 仕事や勉強など有意義なことをしないで (または、定職などが得られなくて)ぶらぶらする。遊び暮す。また、學生が大學などの籍が得られない状態で過す。
④ 《「~に遊ぶ」の形で》他の土地に行つて勉強する。他郷に学ぶ。遊學する。
⑤ 場所·機械·資金·努力などが有効に使われないでいる。
⑥ 物事の処理や作品の制作などに當つて、ゆとりをもつてふるまう。また、興の赴くまゝに對処してしめきを失う。
⑦ 野球で、他者の打ち気をそらすために、投手が故意にストライクを避けてボールを投げる。
◆(語法)楽しむ意の他動詞としても使う。「老年期を豊かに遊ぶ」「氣ままな生活を遊ぶ」
【遊ばす】 [動5] □ [他5] ① 遊ぶようにさせる。また、人材や機械を有効に活用しないでおく。
遊ばせる。② 「る」の尊敬語。□ [補助]
【遊ばせる】 [他下一] ⇨遊ばす [動5] □ ①

현대 일본어사전의 『日本國語大辭典』은 ‘遊ぶ’항목이 자동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明鏡國語辭典』도 자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楽しむの意」일 경우에는 타동사로도 사용한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것은 기존의 일본어 사전과 다른 점이다. 日本語의 古語에는 ‘舞樂を行う, 奏する, もてあそぶ’ 라고 하여 他動詞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사전의 『標準國語大辭典』은 의미항목과 분류 등이 다량다수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丑3) <『標準國語大辭典』意味項目>

놀다(nolda)1 놀[-]:[놀아, 노니[노:-], 노오[노:-]㉞
㉞①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낸다.
② 직업이나 일정히 하는 일이 없이 지낸다. ③ 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한 동안을 쉬다.
④ 물자나 시설 따위를 쓰지 않다. ⑤ 고정되어 있던 것이 험거워 이리저리 움직이다.
⑥ 태아가 꿈틀거리다. ⑦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⑧ 신체부위가 일정하게 움직이다.
⑨ 주색을 일삼아 방탕하게 지낸다. ⑩ 불량한 무리들이 나쁜 짓을 일삼으며 지낸다.

①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지내다.
② ('...을 가지고 놀다' 구성으로 쓰여) 남을 조롱하거나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다.
③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함을 비꼬는 말.
② [...에] 들떠서 주책없이 행동하거나 경솔한 태도를 가지다.
③ [-게] 그러하게 행동하다.
④ [...을] ① 어떤 구경거리가 되는 재주를 부리다.
② 어떤 놀이를 하여 이기고 짐을 거루다.
(類) ① ⑤ 놀아나다(nolanada) ③ [놀다(nolda) <석상(seoksang)>]
놀다2[놀:-][:(놀아, 노니 [노:-], 노오 [노 :-])][○]드물어서 귀하다.
놀다3[○](옛) '연주하다3' 의 옛말.

현대 한국어 사전의 동사 '놀다'는 自動詞와 他動詞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또한 ①⑥의 「태아가 꿈틀거리다」는 「아기가 어머니 배에서 논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動く」 그대로 사용한다. 이것은 양국어의 사전상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일·한 양국어 사전에서의 '遊ぶ'와 '놀다'는 多義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들 사전의 용례를 근거로 格形式과의 결합관계를 살펴본다.

2.2. 연구방법

일본어 동사 '遊ぶ'는 多義語라는 어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奥田(1970)⁹⁾는 多義語의 意味構造를 취급하는 데에는 현재 사용하는 單語와 다른 單語와의 結合關係를 보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것을 근거로 '遊ぶ'가 관계되고 있는 다른 單語와의 구성에서, 그 單語와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수식의 관계를, 關係의 表現面(구성)만이 아니라, 關係의 内容面(결합)까지 關係의 全体的인 現像을 도입해내려고 한다.

또한 森田良行(1994) 『動詞の意味論的文法研究』¹⁰⁾에서는 동사의 格支配와 의미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은 말의 語義에 格支配가 존재하여 그에 影響을 끼치고 있다. 動詞는 그 의미의 内容에서 動作과 作用을 成立시키는 데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사항을 명사에서 시작하여 具體的으로는

9) 奥田靖雄(1970) 「言語学と国語教育」 『国語科の基礎』 むぎ書房 pp.23-24.

10) 森田良行(1994) 『動詞の意味論的文法研究』 明治書院 p.65.

: 動詞の格支配とその動詞が表す意味との關係を記述することは、語義記述の前提として必要なことである。

名詞의 「格」 구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動詞의 「意味」에 따라서 形式도 言語마다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

日本語 近·現代語의 動詞 遊ぶ를 分析·記述하는데는 自動詞와 他動詞(현대 日本語 사전의 ‘遊ぶ’는 他動詞로서의 用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임) 用法의 關係와 主語의 意味範疇에 의한 分類, 즉 主語가 「ヒト(사람)」인 경우, 主語가 「イキモノ(생물)」인 경우, 主語가 「モノ(무생물)」인 경우, 主語가 抽象名詞인 경우 등으로 細分化할 수 있다. 즉, 「ヒト(사람)」와 「人体部分」인 경우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 i) 子供が 遊ぶ。11) (「사람(ヒト)」)
- ii) 手が 遊ぶ。12) (「人体部分」)

위의 用例 i)는 ‘遊ぶ’의 行為 主体가 「사람(ヒト)」이고, 用例 ii)는 「人体部分」을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이 動詞 ‘遊ぶ’와 共起하는 主格名詞에 「ヒト」와 「人体部分」이라는 차이가 있고, 遊ぶ의 意味면에서도 같지 않은 것이다. 또한, 主語가 「ヒト」와 「モノ」以外的 抽象名詞인 경우도 있다.

이들 ‘遊ぶ’와 관계되는 名詞의 格形式이 意味범주와의 상관관계에 기인하여 意味결합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가·카·니格으로 예를 들어 본다.

- ナニナニヲ 遊ぶ あそぶ道具, 手段
- ドコドコニ 遊ぶ あそぶ場所
- (一人ガ 遊ぶ) あそぶ様子, 狀態
- ∴

이러한 意味的인 결합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음의 경우도 있다.

- ダレダレガ 遊ぶ あそぶ行為의 主体가 「ヒト(사람)」
- ナニナニヲ 遊ぶ 「道具」
- ドコドコニ 遊ぶ 「動作空間」

11) 小内一編(2010) 『てにをは辞典』三省堂 p.30.

12) 상동, p.30.

「ダレダレが遊ぶ」와 같은 ‘遊ぶ’ 行為의 主体가 「ヒト(사람)」인 경우와 「ナニナニヲ遊ぶ」의 道具인 경우, 「ドコドコニ遊ぶ」와 같은 動作空間을 가리키는 경우 등의 格形式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遊ぶ’을 수식하는 格關係를 다룰 경우에는 名詞의 内容面과 ‘遊ぶ’의 連語論的인 關係와도 결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본어의 連語論的인 기술연구를 보면 根本今朝男(1961)¹³⁾ 「ガ格の名詞と形容詞とのくみあわせ」(『ことばの研究』)와 松本泰丈(2005)¹⁴⁾ 「連語のくみたてにくわる名詞」가 있다. 이러한 위와 같은 格形式의 구성을 바탕으로 韓国語도 日本語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연구방법으로 분석한다.

동사 ‘遊ぶ’와 ‘놀다’의 用例資料는 사전을 비롯하여 靑空文庫CD-ROM版과 国立国語研究所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少納言), 기타 檢索 등을 기초로 분석한다. 韓国語도 日本語와 마찬가지로 사전을 비롯한 현대의 문학작품과 国立国語院 『21世紀世宗計劃』(言語情報나눔터)등을 提供한다.

3. 일·한 명사의 格形式과 동사의 多義的 어휘분석

宮島達夫(1972)¹⁵⁾는 單語의 意味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여러 종류의 의미특징으로 나뉘고, 의미기술은 그와 같은 의미특징을 기초로 하여 行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諗천하고 있다.

3.1. 일·한 자·타동사에 대한 多義性 關係

일본어와 韓國어의 자동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遊ぶ’와 ‘놀다’ 동사는 수식關係에 있어서 主格名詞인 ガ形(韓國어에서는 ~가/이形)을 지니는 表現面의 特徵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ダレダレが遊ぶ」, 「ナニナニが遊ぶ」라고 하는 히토(사람)와 イキモの(생물), イキモノ以外のモノ(생물이외의 事物)등이 주어인 경우에 ガ格名詞와 結合하게 된다. 또한 이외에 ハ形(韓國어에서는 ~는/은形)이나 주어 省略형을 지니기도 한다.

13) 根本今朝男(1961) 「ガ格の名詞と形容詞とのくみあわせ」 『ことばの研究』 秀英出版 p.83.

14) 松本泰丈(2005) 「連語のくみたてにくわる名詞」 『国文学解釈と鑑賞』 890 pp.192-205.

15) 宮島達夫(1972) 『動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 国立国語研究所 秀英出版 pp.5-13.

- 1) **子供たちが遊ぶ**のを見守りながら、あたしはどうやってその午後を過ごしたらいいのだろうと途方に暮れてばかりいた。(森瑶子 『終りの美学』 文学9,1993)
- 2) アトラス杉の茂み、小さな村の端を飾る白樺の林が、まるで北国にいるかのような錯覚を起こさせる。水辺では**羊たちが遊ぶ**。(『本の』 2000/10:6~7)
- 3) **イーさん**のお話いつも健一から聞いています。今日はゆづり**遊んで**いってくださいね。(NEW:p.159)
- 4) **子供**は外で元気に**遊ぶ**ものだ。
아이는 밖에서 활발하게 **놀기** 마련이다.(다이내믹:211)
- 5) 来週、科学の試験だから、**遊び**に行くわけにはいかない。
다음주 과학 시험이니까 **놀러 갈 수**는 없다.(다이내믹:213)
- 6)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앉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난:71)
- 7) 길 복판에는 6, 7인의 **아이들이 놀고** 있다。(韓国現代隨筆을 찾아서)
- 8) 진화론이 그 사실을 보여 줄 때까지는, 옛날의 부지런한 **일꾼이 놀고**먹는 게으름뱅이 벌레가 되었다고 아무리 말하여 보았됐자, 나는 ‘그럴까요?’하고, 웃어넘기는 수밖에 없다。(昆虫記, 電子파일)

이러한 용례 「~가遊ぶ」는 가格名詞의 存在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히ト(사람) 이외의 イキモノ(생물) 名詞가 主語로 오는 예도 볼 수 있다. 위의 용례 가운데 히ト(사람) 이외의 イキモノ(생물)는 意志性이 없어지는 등 같은 「有情物」이라도 히ト名詞와 다른 동작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主体的으로 行動이 가능하고 意志를 가지는 히ト(사람)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도 있다.

- 9) 企業縮小で**社員が遊んでいる**。(森田良行(1977) 『基礎日本語』 :21)

여기에서는 사원은 企業縮小로 인하여 **遊ぶ**하는 것을 余暇를 잃고 있기 때문에, 本人의 意志性, 能動性이 發揮되지 않는 것이다. 아래의 용례는 이것이 더 심해진 경우이다.

- 10) **遊んで暮らす**いい身分。(森田良行(1977) 『基礎日本語』 :21)
- 11) 退職後はずっと田舎で**遊んで**おります。(森田良行(1977) 『基礎日本語』 :21)

위의 예와 같이 外部로부터 自主적으로 그와 같은 状態에 자신의 몸을 맡겨두는 경우에도 ‘遊ぶ’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遊ぶ’는 具體的이고 個別的인 動

작이 아니라, 「仕事に就いていない」라는 主体의 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다.

森田(1977)¹⁶⁾의 「遊ぶ」는 그 자체의 機能을 發揮시키지 않는 狀態에 놓여있다고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人体部分과 モノ(사물), 토지 등 ヒト(사람)名詞以外的의 主語가 되는 ‘遊ぶ’는 자동사문이 되는 것이다.

12) 口ばかり動かして肝心の手が遊んでいる。(森田良行(1989)『基礎日本語辞典』:42)

13) せっかく購入した最新式の機械も、企業縮小で遊んでいる。(森田良行(1989):42)

14) 広い土地が遊んでいる。(森田良行(1989):42)

自動詞的인 ‘遊ぶ’의 용법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히(사람)의 動作과 行爲를 가리키는 것부터, 히(사람)의 非意志的인 狀態, 히(사람) 이외의 것, イキモノ(생물)의 無意志的인 動作과 狀態, 게다가 히(사람), イキモノ(생물) 이외의 モノ(사물, 非情物)의 狀態를 가리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森田(1989)의 ‘遊ぶ’의 취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심적인 意味와 用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周邊的인 意味와 用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他動詞에 대한 경우이다. 森田良行(1989)를 비롯한 現代 日本語 国語辞典의 ‘遊ぶ’에 대한 설명은 自動詞로 취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北原保雄(2011)의 『明鏡国語辞典』에서는 「楽しむの意」일 경우에는 他動詞로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실제로 近・現代 日本語의 용례를 수집하여 보면 「～ヲ遊ぶ」라는 구성이 모두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奥田(1968~1972)가 취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ヲ格을 지니는 동사 모두가 他動詞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ヲ遊ぶ」전체는 ヲ格名詞와 ‘遊ぶ’와의 구성관계에 있으므로, 용례를 통하여 타동사적인 표현을 살펴본다.

15) 趣味人倶楽部のコミュニティ「一休さんの詩を遊ぶ」です。(smcb.jp/communities)

16) ウィンドウの配置：ネットゲ¹⁷⁾を遊んでいる記録。(moe.shinkiroh.com)

17) 街へいこうよ。どうぶつの森を遊んでいます。村から好きな子が出て行ってしまいました。(detail.chiebukuro.yahoo.co.jp)

18) 【先行プレイ】『ARK MOBILE』を遊んでみた！(www.youtube.com)

16) 森田良行(1977)『基礎日本語』角川小辞典 8-2 角川書店 pp.21-22.

17) ネットゲーム, インターネットゲーム(인터넷게임, 온라인게임)의 줄임말.

- 19) 어디를 놀러가지 못한다면 레저스포츠 어때용? 요즘엔 어디를 놀러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레저 스포츠로 여름을 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blog.naver.com/1xusu02fx)
- 20) 할머니와 함께 서해바다를 놀러갔다!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암반들이 짝 펼쳐져 있었다.(blog.naver.com/dmscks)
- 21) 스페인친구들과 후지산과 바닷가를 놀러 가는데 카메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www.slrclub.com/bbs)

上記 용례 「ナニヲ遊ぶ、ナニヲ遊んでいる」 등을 보면, ‘遊ぶ’는 他動詞이다. ‘遊ぶ’가 ㄱ격의 空間名詞로 구성되는 「ドコドコを遊ぶ」는 「ドコドコをいく、あるく、とぶ」 등의 移動 自動詞로 구성되어 이동하는 場所를 나타내는 狀況的인 ㄱ격이다. 하지만, 北原保雄(2011)에서는 ‘遊ぶ’의 意味로 「楽しむの意」 일 경우에는 타동사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의미는 「動き回って楽しむ」로 해석되므로 타동사로 볼 수 있다.

- 22) その日1個隣後ろの犬夜叉が一撃4千枚出たわ... パチスロ涼宮ハルヒの憂鬱を遊んでみた。(twitter.com)
- 23) 大学2年半を遊んで過ごした学生が、長期インターンシップに参加して得たものとは?
(internshipguide.jp/columns)
- 24) 1日前-タイトル名を出しているのか分からないですけど、ゼルダの伝説を遊んでいらっしやる方にも、楽しんでいただけたと思いますし、そういうところと並んでタイトルを出せるっていうのは僕らにとっても刺激やフィードバックになります。(switchsoku.com)
- 25) 언제나와 같이 코치서핑(couchsurfing)에서 한국(서울)을 놀러오는 여행객들에게 무작정 연락해 한국인 집에서 같이 집밥 해 먹자고 메시지를 보냈다.(brunch.co.kr)
- 26) 휴무날 처음으로 방이동 먹자골목을 놀러와 봤어용. (blog.naver.com)

「ドコドコを遊び回る」와 비교하면 單純動詞와 구성되는 「ドコドコを遊ぶ」의 ‘遊ぶ’에는 対象性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앞에 나온 「ナニナニを遊ぶ」와의 連続性도 있는 것이다.

3.2. ㄱ格형식과 遊ぶ·놀다와의 多義性 분석

일본어 동사 ‘遊ぶ’는 놀이상대가 타(사람)인 경우에는 그 타(사람)의 意志的인 動作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動作의 대상이 아이와 결부되기 쉬운

현상도 확인할 수 있다.

- 27) 母の傍らで子供が遊ぶ。
어머니 곁에서 아이가 놀다.(엣센스日韓辭典:506)
- 28) その男のところに友だちが遊びに来た。
그 남자 집에 친구가 놀러왔다.(「困ったくせ」:102-103)
- 29) かにが困っていると、ちょうどさるが遊びにきました。(「さるかに合戦」:144-145)
게가 난처해하고 있을 때 마침 원숭이가 놀러 왔습니다.
- 30) 鬼が島では、鬼たちが近くの村から盗んだ宝物やごちそうを並べて、お酒を飲みながら遊んでいます。
오니가시마에서는 도깨비들이 근처 마을에서 훔친 보물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어요.(『昔話』:14-15)
- 31) 이미 뱃속에서 아이가 놀고 발길질을 할 때는 아직 자기 몸에 속하지만(하락)(男性을 保護하라,2001)
- 32) 태동도 배 전체에서 꿈지락꿈지락. 아기가 잘 노는데 엄마는 조금만 먹어도 습차고 더부룩하네요.(http://m.namyangi.com)

용례에서 일본어 ‘遊び’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의 ‘遊び’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意志성이 있기 때문에 ‘遊ぶ’의 行為에 대하여 플러스적인 評價를 취할 수 있다. イキモノ(생물)가 ‘遊ぶ’하는 空間은 「ドコドコデ」라는 動作空間으로서 취급되어진다. 한국어 용례 ‘뱃속에서 아이가 놀고’, ‘배 전체에서…아기가 잘 노는데’라는 문형에서는 ‘놀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어에서는 ‘遊ぶ’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動く’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점에서 양국어의 格형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 33) 「人手不足だろ。注文はどんどんあるのに、人がいなくて機械が遊んでるもんだから、学生を入れるんだ。(下略)」。(新潮 三木卓 『フルー』:136)
- 34) 「一朱もやれば前栽物なんぞ、持ちきれないほど百姓家で分けてくれるのに、いくら地面が遊んでいるからって、苦労してうちで作る馬鹿があるものかね」…。(杉本苑子(1990) 『夜叉神堂の男』)
- 35) 日本では家にひきこもってテレビゲームをする子を、「社交嫌いで内省的だ」などと言っている親がいるが、あれこそは実体のない外界に心が遊んでいるだけである。

(曾野綾子(2003)『アラブの格言』)

- 36) いや、ここは北であって南である。相對するすべてのものが一つになる空間に、**踊り手たちの魂が遊ぶ**。(中上紀(2001)『雑誌/教育・学芸/季刊銀花』文化出版局)
- 37) **섬들이 놀다**. (장대송『섬들이 놀다』창작과비평사,2003)
- 38) ‘인문계 출신 **90퍼센트가 논다**’는 뜻의 ‘인구론’이란 말도 있다.
(『명견만리』:267)
- 39) PD: **선장님이 노는데**¹⁸⁾ 배가 움직인다. (mbn방송:2018.05)
- 4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선녀들이 놀다 간** 선부리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http://ansan.grandculture.net)

이러한 用例는 ㄱ格名詞에 사물(モノ, 廣義의モノ)의 機械, 地面, 섬, 땅이 있고, 또한 心등의 사람(ヒト)의 心理現象에 관계되는 抽象的인 名詞등이 와서 그러한 것이 그에 적절한 기능 또는 작용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어른들의 ‘놀다’에 관한 의미는 일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의 표현이 주로 쓰인다.

3.3. ㄱ格형식과 遊ぶ·놀다와의 多義性 분석

ㄱ格형식과 결합하는 ‘遊ぶ’와 ‘놀다’는 空間名詞의 문형을 이루고 있으며, 타동사적인 의미를 취하기도 한다.

- 41) 現金特価、**四国を遊んで**お風呂でまったり、6つの貸切風呂使い放題！自由気ままに素泊りプラン。(hotel.travel.rakuten.co.jp)
- 42) 公園特集、楽しみ方いろいろ！**公園を遊びつくそう!**(toyota.jp>おでかけトヨタ)
- 43) 여기 중국길림인데요 방학때 **태국(방콕)을 놀러가려고** 합니다.
(https://search.naver.com)
- 44) 호주워킹홀리데이 브리즈번 데일리 불금, 사우스뱅크 **마켓(야시장)을 놀러 간다**. (blog.naver.com)

「ドコドコ遊ぶ」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ㄱ格名詞의 空間性이 살아있다면, 「ドコドコ遊び回る」라고 하는 内容이 되는 것이다.

18) 노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데 의 의미.

다음의 「英語とマナーヲ遊ぶ」는 時間·空間을 초월한 狀況을 보이는 것이다.

- 45) 「ルシメル大陸シナリオを遊んで強くなろう！」(sp.mmo-logres.com/news)
- 46) 英語とマナーを遊んで学べるプリスクール保育園。(happy-kids.com)
- 47) 「天気～あそんでまなぼう」などをフィーチャーした「いろいろな仕組みを遊んで学ぼう」(itunes.apple.com/jp/story)
- 48) 太陽光発電を遊んで学ぼう！(www.tamiya.com/japan)

이러한 ‘遊ぶ’와의 구성에 있어서는 「楽しむ·興ずる」의 의미뿐만 아니라, 「勉強する·学ぶ」의 意味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49) 大学2年半を遊んで過ごした学生が、長期インターンシップに参加して得たものとは？(internshipguide.jp/columns)
- 50) 아내: 우리집 남편은 평생을 놀고먹고 사는 남편이에요. (TV조선,2018.06)
- 51) 펜스 부통령은 (중략)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라면서, (하략).(<http://news.kbs.co.kr/news>)

이러한 용례 가운데 ‘2년을, 평생을’에서는 時間的인 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의 복합동사 ‘갖고 놀다’는 위의 용례에서와 같이 ‘평생을, 대통령을’이라는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ナニナニヲ持って遊ぶ」라는 용례는 「ナニナニヲナニナニして遊ぶ」라는 표현을 7格에서 양국어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용례를 보기로 한다.

- 52) 金太郎は毎日毎日、動物たちとすもうをして遊んでいました。(『昔話』:64)
긴타로는 매일매일 동물들과 스모를 하며 놀았습니다。(『昔話』:65)
- 53) 私は子供를自由に遊ばせています。(NEW:p.193)
- 54) いろんな人の読み方を拾い読みしながら、漢字のイメージをふくらませて、自分流の一休さんの世界를作りあげて遊びたいと思っています。(communities/32123)
- 55) 人形の配置를変えて遊んでみるアース製菓さんの商品를体験させてもらってます。(lineblog.me/chiharu/archives)
- 56)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은 선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골짜기 우물물에서 목욕를 하며 놀고 있었다.(<http://ansan.grandculture.net>)
- 57) 진행자: 팔씨름을 이기면 갖고 논다는 거죠? (MBN,동치미,2018.05)
- 58) 투호놀이는 양반이나 귀족들이 예(禮)를 갖추고 노는 놀이었다。(『전래놀이』:28)

- 59) 장난감 그릇이나 기구를 가지고 살림을 사는 흥내를 내며 각자 **역할을 맡아서** 놀면 된다. (『전래놀이』:136)
- 60) 등 자체에 **그림자를 비춰서** 놀기도 하고, 등 안쪽에 여러 가지 동물 인형들을 붙여서 그림자로 극을 하며 함께 놀았다고 전해진다. (『전래놀이』:140)
- 61) 수건돌리기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고, 술래가 **수건을 돌리며** 노는 놀이다. (『전래놀이』:212)

이외에도 일·한 양국어의 「ナニナニヲナニナニして遊ぶ」는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モノ、コト」를 나타내고, 「ナニナニヲ遊ぶ」의 문형보다 용례가 다양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일본어보다 한국어 용례가 많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기에는 지면상의 아쉬움이 남는데 다음의 과제로 할애한다.

3.4. 二格 형식과 遊ぶ·놀다와의 多義性 분석

일본어 ‘遊ぶ’의 二格 형식은 「ドコドコニ遊ぶ」, 「ナニナニニ遊ぶ」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 62) 三絃は野崎檢校の門に遊び、尺八は明暗寺の徒にとふ。(tois.nichibun.ac.jp)
- 63) 江戸滞在中、相模国浦賀や下総国国府台に遊んだ。(up-t.jp/info.php)
- 64) 「お願いします。私を伊勢参りに行かせてください。必ず人間になって戻ってきますから」
부탁이에요. 절 이제 신사에 참배하러 가게 해 주세요. 반드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테니까요.(『昔話』:38-39)
- 65) ある日、一寸法師はお姫様のお供をして、お寺にお参りに行きました。
어느 날, 잇스보시는 공주님을 모시고 절에 참배하러 갔어요. (『昔話』:80-81)
- 66)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머리 깎은 백인이 회색 승복 바지를 입고 땀을 흘리며 햇차를 만들기에 “스님이냐?”고 물어보니 템플 스테이 장기 숙박자라고 한다. 독일 사람인데 몇 년 전 우연히 이 절에 놀러 왔다가 좋아서 놀러왔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일단사(一簞食) 일표음(一瓢飲)’의 경지를 서양인이 안단 말인가! 독일 사람인데 몇 년 전 우연히 이 절에 놀러 왔다가 좋아서 놀러왔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화엄사 가는 길,2017」)
- 67) 우리 왕국으로 놀러오세요.(EBS,한국기행,2018.03)

이러한 用例 62)의 「ダレダレ」의 「門に遊ぶ」에 관해서는 「ダレダレ」가 있는

곳에서 배우고, 「ダレダレ」에게 입문하고(入門する), 「ダレダレ」의 弟子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ヒト(사람)」名詞를 바로 二格형식을 사용하여 「ダレダレに遊ぶ」라고는 할 수 없고, 「ダレダレの門に、ダレダレのもとに」와 같이 空間化되는 경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遊学する’의 ‘遊ぶ’와 결부된다. 이러한 점에서 空間名詞인 「門」이라는 점의 固定된 문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慣用語적 표현도 가능하다.

한국어 용례 ‘절에’는 언뜻 보면 「楽しむ」의 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후에는 「遊学する・学ぶ・祈る」의 의미로 이어져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일본어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사에 참배하러’ ‘절에 참배하러’라는 직접적인 의미를 사용한다. 다음의 용례 ‘왕국으로’는 일반적인 「ドコドコに遊ぶ」로 사용되어 해당 場所에 나가서 風物이나 風情을 느끼며 「楽し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古語의인 느낌이 드는 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와의 다양한 다의적 어휘관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다음의 「ドコドコに遊ぶ」에는 약간 特異한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하여 時間表現인 쪽의 「イツイツに遊ぶ」는 단순히 時間的인 關係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아래의 용례 ‘작년에, 겨울에, 낮에’와 같은 것이다.

- 68) 연예인이 되어서도 내성적인과 vs 과거에 놀았던 파가 나뉘어진댄다. 과거에 놀았던 파가 과거에 공부만 했던 파를 무시하기도 한단다.
(gall.dcinside.com/board/view)
- 69) 학창시절에 못 놀고 공부만 했는데 지방대 간 애들도 추억 많냐?
(gall.dcinside.com/board/view)
- 70) 나도 작년에 놀고 이제 올리는 추억속 추억의 거리에서 놀기. 전 겨울이 그리워 겨울에 놀았던 날을 포스팅하네요!(blog.naver.com/doll707)
- 71) “낮에 놀다가 대보름이 뜨면 하늘로 연을 날려 보내요. (『공감』:56)

다만, 「過去に遊ぶ」라고 하는 구성이 자유롭게 過去の世界에 나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たのしみ興ずる」와 같이 연결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 72) 先生、いつかソウルに遊びに来ませんか。(NEW:p.49)
- 73) 高橋：バクさんはお子さんに、何を習わせているんですか。
バク：ええ、学校のキャンプに行かせたりして遊ばせています。(NEW:p.191)

- 74) ある日、金太郎は動物たちと隣の山に出かけました。(『昔話』:68-69)
어느 날, 긴타로는 동물들과 가까운 산에 놀러 갔어요. (『昔話』:69)
- 75) 아내: 2년 동안 집구석에 놀면서 청소하나 제대로 안 해.(MBN,2018.05)
- 76) “남북 평화 사기극에 놀아나면 안돼”(m.segye.com 세계일보,2018.3.10.)
- 77) 놀이의 주체는 노는 사람들이며, 놀이를 할 때는 열심히 하도록 한다. 쉬운 놀이 거나 어려운 놀이든 한 가지 놀이에 몰입하여 놀도록 한다.(『전래놀이』:17)

상기의 용례 ‘서울에, 캠프에, 산에’는 空間化되는 측면이 있고, ‘집구석에’라는 용례도 같은 공간적인 면이지만, 마이너스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出かけて歩きまわる」라고 하는 意味特徴과 함께 「楽しむ, 興ずる」라는 意味特徴도 갖추고 있다. 『学研国語大辞典』19의 해석(語釈)에서도 「ある土地に行つてそこの風物を楽しむ」라고 하여 「楽し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용례 ‘사기극에’는 어떤 상황적인 경우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너스적 표현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용례의 예외로서 ‘놀이에 몰입하여 놀도록’에서는 ㄱ格과 마찬가지로 「ナニナニナニナニして遊ぶ」의 문형을 취하고 있고 실제 용례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일·한 양국어 동사 ‘遊ぶ’와 ‘놀다’의 多義的 어휘의 의미변화에 대하여서 자동사와 타동사와의 의미관계, ㄱ格名詞와 동사와의 의미관계, ㄴ格名詞와 동사와의 의미관계, ㄷ格名詞와 동사와의 의미관계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동사의 의미항목과 새로이 동사의 의미기능으로서 인정되는 항목, 즉 의미의 확장 범위 등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다의적인 접속의 構造的 구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自動詞的인 ‘遊ぶ’에서는 ㄷ(사람)의 動作·行爲를 가리키는 것부터, ㄷ(사람)의 非意志的인 狀態, ㄷ(사람) 이외의 것, ㄱ(생물)의 無意志的인 動作과 狀態, 게다가 ㄷ(사람), ㄱ(생물) 이외의 ㄴ(사물, 非情物)의 狀態를 가리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遊ぶ’가 ㄱ格의 空間名詞로 구성되는 「ドコドコ

19) 金田一春彦外(1980) 『学研国語大辞典』 第二版 学習研究社 p.32.

を遊ぶ」는 「ドコドコをいく、あるく、とぶ」 등의 移動 自動詞로 구성되어 이동하는 場所를 나타내는 狀況의인 ㄱ격이 된다. 하지만, 北原保雄(2011)에서는 ‘遊ぶ’의 意味가 「楽しむ」의 뜻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타동사로 본다고 하는 점에서 본고에서도 용례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문이 나타났기 때문에 타동사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일본어 사전과 상이한 점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었다.

한국어 용례에서 ‘벋속에서 아이가 놀고’, ‘배 전체에서…아기가 잘 노는데’라는 문형을 사용하고, ‘놀다’의 의미로 그대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일본어에서는 ‘遊ぶ’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動く’라는 표현과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양국어의 ㄱ격형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ㄱ격명사의 ‘옷을, 공을’의 용례에서는 「ナニナニヲ持って遊ぶ」라는 도구, 기구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ナニナニヲ持って遊ぶ」라는 용례는 「ナニナニヲナニナニて遊ぶ」라는 복합적인 형태의 의미를 양국어 ㄱ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二格名詞의 한국어 용례 ‘절에’는 「遊学する·学ぶ·祈る」 등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일본어 용례에서는 ‘신사에 참배하러’ ‘절에 참배하러’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가진 어휘적 의미를 사용한다. 이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다의적인 어휘관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ㄱ격과 마찬가지로 「ナニナニナニナニして遊ぶ」의 문형을 취하고 있는 용례도 자주 출현되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일·한 양국어의 동사 ‘遊ぶ’와 ‘놀다’의 다의적 어휘 분석을 통하여 차이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본고의 지면상 다루지 못한 부분, 즉 「ナニナニヲナニナニして遊ぶ」, 「ナニナニナニナニして遊ぶ」 등의 출현빈도 등에 대해서도 후속연구로 한다.

【참고문헌】

- 奥田靖雄(1960) 「を格のかたちをとる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 むぎ書房, p.12
 (1970) 「言語学と国語教育」 『国語科の基礎』 むぎ書房, pp.23-24
 北原保雄(2011) 『明鏡国語辞典』 第二版 大型版 大修館書店, pp.33-34
 金田一春彦ほか(1980) 『学研国語大辞典』 第二版 学習研究社, p.32
 小泉保ほか(1989) 『日本語基本動詞用法辞典』 大修館書店, p.16
 国広哲弥(1982) 「意味分析の方法」 『意味論の方法』 大修館書店, p.43, p.54

- _____ (1994) 『動詞の意味論的文法研究』 明治書院, pp.42-44
- 国立国語研究所(2004) 『分類語彙表』(増補改訂版)大日本図書 秀英出版, pp.18-295
- 根本今朝男(1961) 「カ格の名詞と形容詞とのくみあわせ」 『ことばの研究』 秀英出版, p.83
- 日本国語大辞典編集部(2000) 『日本国語大辞典』 第2版 小学館, pp.288-289
- 松本泰丈(2005) 「連語のくみたてにくわる名詞」 『国文学解釈と鑑賞』 890, pp.192-205
- 宮島達夫(1972) 『動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 国立国語研究所 秀英出版 pp.5-13
- 森田良行(1975) 『基礎日本語』 角川小辞典 8-2 角川書店, p.22
- _____ (1989) 『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pp.42-44
- _____ (1994) 『動詞の意味論的文法研究』 明治書院, p.65
- 国立国語研究院(1999) 『標準国語大辞典』(上)ㄱ~ㄹ (株)斗山東亜, p.1251
- 金到閏(2005) 「日・韓両国語の動詞の意味と構文分析について」 『日語日文学研』 第52輯 2月号
韓国日語日文学会, pp.99-118
- _____ (2016) 『日・韓両国語の語彙の対照研究』 学士院, pp.20-78
- _____ (2016) 「日本語動詞の語彙的な意味使用の分析」 『日本文化学報』 第71輯 韓国日本文化
学会, pp.117-134
- 孫洛範・安田吉実(1989) 『エッセンス日韓辞典』 民衆書林, pp.52-2060
- 延世大言語情報開発研究院(1998) 『延世 韓国語事典』(株)斗山, pp.391-392
- 韓有錫(2010) 『日韓分類語彙比較』 韓国文化社 pp.702-703

【용례자료】

青空文庫インターネットの電子図書館 小説50選上・下
新潮文庫の100冊 CD-ROM版 新潮社
国立国語研究所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少納言)
http://kotonoha.gr.jp/shonagon/search_form
国立国語院 『21世紀世宗計劃』(言語情報나눔터)
<https://www.yahoo.co.jp>
<https://www.daum.net>

논문 투고 일자 : 2018.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8. 07.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8. 03.

 < 要 旨 >

 日・韓国語の動詞の多義的な語彙分析研究
 - 遊ぶと놀다を中心に -

金到閔

本稿では日・韓国語の動詞「遊ぶ」と놀다の多義的な語彙の意味変化に対して、自動詞と他動詞との意味関係、ガ格ならびにヲ格・ニ格名詞と動詞との意味関係を区別して分析した。

自動詞的な「遊ぶ」はヒトの動作=行為をあらわすこと、ヒトの非意志的な状態、ヒト以外のもの、イキモノ（生物）の無意志的な動作と状態、さらにヒト、イキモノ（生物）以外のモノ（モノ、非情物）の状態をあらわしていることに対して影響を及ぼしている。「遊ぶ」がヲ格の空間名詞で構成されている「ドコドコを遊ぶ」は、「ドコドコをいく、あるく、とぶ」などの移動自動詞で構成されて移動する場所を示す状況的なヲ格になる。しかし、北原保雄（2011）では、遊ぶの意味が「楽しむ」の意で使われる場合には他動詞となる点で既存の日本語の辞書と異なる。韓国語の用例で「お腹の中で赤ちゃんが遊んで」、「お腹で…赤ちゃんがよく遊んでいる」という文型は놀다の意味でそのまま使われているのに対し、日本語では遊ぶの表現を使わないで「動く」という意味で使われている点は両国語のガ格形式において差異が現れる。ニ格名詞の韓国語の用例「절에」は「遊学する・学ぶ・祈る」などの意味で使っている場合が多い。これは日本語の用例では「伊勢参りに行かせて、お寺にお参りに」という直接的な表現を持つ語彙の意味を用いている。以上、本研究では日・韓国語の動詞の「遊ぶ」と놀다の多義的な語彙分析を通じて多様な差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

 A Study on the Lexical Analysis of Various Meanings in Japanese and Korean Verbs
 -Focusing on the Words of “Asobu” and “Nolda”-

Kim, Do-Eun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meaning of the polysemous Japanese word ‘Asobu’ and its corresponding Korean word ‘Nolda’ both of which means ‘Asobu’ in terms of the meaning relations between intransitive and transitive verb; Ga-case noun and verb; Wo-case noun and verb; and Ni-case noun and verb. ‘Asobu’ used as an intransitive verb, affects not only a movement (=action) and a non-volitional state of ‘a person’ but also a non-volitional movement and state of ‘a living thing’, which is not a person, as well as the state of ‘a thing’, or an inanimate object, which is neither a person or a living thing. ‘Asobu’ is in the Wo-case when it is used in phrases with a spatial noun as in ‘playing to somewhere’ and becomes an intransitive movement verb in the Wo-case as in ‘going to somewhere, walking, flying’. But Kitahara Yasuo (2011) expressed an opinion that wa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osition of Japanese dictionaries that if a word ‘Asobu’ meaning the same as the word ‘Enjoy’ is considered a transitive verb. In Korean usage, the expression ‘in a temple’ with a Ni-case noun are often used together with ‘study abroad’, ‘learn’ and ‘pray’, while in Japanese usage, the Japanese expression corresponding to ‘in a temple’ is often used together with a direct expression as in ‘worship in a shrine (temple)’.